



서술성모와 고대 한국의 여신 관념

The Mother Goddess of Mt. Seosul and Ancient Korean Goddess Ideas

저자
(Authors) 나희라
Na, Hee-La

출처
(Source)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2021.11, 151-182 (32 pages)
[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24\(2\)](#), 2021.11, 151-182 (32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문화학회](#)
Korean Society For Local History And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72742>

APA Style 나희라 (2021). 서술성모와 고대 한국의 여신 관념.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151-18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17 13: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술성모와 고대 한국의 여신 관념

나희라*

목 차

1. 머리말
2. 『삼국유사』의 선도성모와 서술성모
3. 원초적 여신 관념과 서술성모
4. 맺음말

[초록]

이 글은 송에서 들어온 선도산 여신 이야기가 신라의 시조모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화의 해석과 변개를 설명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선사시대 이래의 여신 관념을 특히 신라와 관련한 자료를 통해 정리해본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사론에 선도산 여신 이야기가 소개되자, 선도산 여신은 선도성모 혹은 서술성모라는 신라의 시조모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선도산은 서쪽 방위에 위치한 서악이라는 점에서 신라시대 경주의 서악인 서술산에 비정되었다. 또 그 여신은 시조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닭과 흰색의 요소에 대한 음양오행설적 해석을 통해 시조모의 위치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에서 선도성모는 서술산의 산신이자 신라의 시조모로 기술되었는데, 그녀는 위대한 창조력으로 시조를 낳아 나라를 있게 하고 보호하였으며 동물을 부리며 직조를 하는 신성함을 보여 준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여신에 대한 관념은 고대 한반도 일대의 원초적인 '위대한 여신' 관념의 흔적이다. 원초적 여신 관념은 역사시대 이후 신화적 관념이 부정되면서 점차 희석되고 왜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간 정신의 기저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주제어] 여신, 선도성모, 서술성모, 신라 시조신화, 『삼국유사』

* 경상국립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mythna@gnu.ac.kr

1. 머리말

고대 한국의 여신 숭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¹⁾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에서 여신 숭배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역사시대에 들어와 남성 중심의 신화로 만들어진 각종 건국신화에서도 여성성이 드러내는 창조와 풍요의 힘에 대한 숭배 관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특히 시조모에 대한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고대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시조모는 한 집단 내지 국가의 시작에서 그것을 가능케 한 원천적인 힘을 드러내는 신화적 존재이다. 고구려의 유화, 신라의 선도성모, 가야의 정견모주, 고조선의 웅녀 등이 그러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선사시대부터 만주와 한반도 일대 거주민들이 지녔던 여신 관념과 신앙의 흔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건국신화에서 그려지는 시조모의 모습과 활약상은 조금씩 달랐는데, 이는 각기의 신화가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상황의 차이와 아울러 그것이 전승되고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의 차이 등 복잡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신라의 시조모로 전해지고 있는 선도성모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선도성모는 신라의 건국시조인 혁거세를 낳아 나라를 건국하게 한 시조모로 그려졌다. 그러나 그보다 130여 년 앞서 편찬된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건국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탄생한 혁거세였고, 그 외 석씨와 김씨 왕실의 시조들도 하늘이나 바다 저편에서 온 알(혹은 껍질)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여, 시조모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삼국사기』 편찬의 책임자였던 김부식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송의 관료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하나를 신라 본기의 사론 부분에서 소개하

1) 고대 한국의 여신 신앙과 숭배를 정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진태, 1934, 「朝鮮 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진단학보』 1(1948, 『조선 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에 재수록); 김철준, 1971,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성격」, 『유형철박사화갑기념논총』, 탐구당(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에 재수록). 三品彰英, 1973,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천혜숙, 1991, 『여성신화 연구(1): 大母神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1; 김준기, 1994, 「고대신화에 나타난 神母信仰」, 『한국민속학보』 4; 윤혜신, 2013, 「한국 고대 여신의 유형과 역사적 선후 관계」, 『동방학지』 162; 채미하, 2016, 「한국 고대 신모와 국가제의」, 『동북아역사논총』 52; 전호태, 2018, 「한국 고대의 여신신앙」, 『역사와 경계』 108.

였을 뿐이다. 중국 제실의 딸이 남편 없이 잉태하여 진한으로 와서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해동의 시조왕이 되었고 그 여인은 선도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²⁾

이 때문에 신라의 신화적 전통에서 시조모 신화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³⁾ 이 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삼국유사』에 실린 선도성모 시조모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 둘째는 선도성모 이야기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들어온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선도성모가 신라의 시조모로 자리잡게 되는 데는 신라의 시조모 신화의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 셋째는 신라에 원래 시조모 신화는 없었고 선도성모 이야기는 고려시대에 성립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삼국유사』 설화 자료의 이해 문제와 고대 한국의 신화 계통과 갈래를 논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타당한 문제 제기에서 갈라진 것으로 모두 의미가 있다. 필자는 두 번째 입장의 편에 서 있다. 신라의 많은 여신 혹은 신이한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시조모 관념을 탄생케 한 원초적인 ‘위대한 여신’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어서, 신라에 시조모 신화의 전통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삼국유사』에 실린 선도성모 시조모설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보았다.⁴⁾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에서는 송에서 들어온 선도산 女仙 이야기가 고려사회에서 해석되어 신라사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화적 관념과 신화 내용의 적용과 변개를 설명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선사 이래의 여신 관념을 특히 신라와 관련한 자료를 통해 다시 들여다보고자 한다. 『삼국유사』에서 선도성모는 신라의 시조모이자 서술산의 산신으로 기술되었는데, 그녀는 위대한 창조력으로 시조를 낳아 나라를 있게 하고 보호하였으며 동물을 부리며 직조를 하는 신성함을 보여준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여신에 대한 관념은 고대 한반

2) 『三國史記』 卷第12, 新羅本紀第12, 敬順王 論曰.

3) 이에 대해서는 나희라, 2021, 『고려시대 선도성모 이야기의 전래와 정착』, 『한국사연구』 194, 2~3쪽.

4) 나희라, 2021, 앞의 논문.

도 일대의 원초적인 ‘위대한 여신’ 관념의 흔적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소개 받은 선도성모 이야기가 신라의 시조모 신화로 정착하는 데에는 선사 이래의 오랜 여신 관념과 신앙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덧붙여 고대 한반도의 원초적 여신 관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삼국유사』에 채록된 설화 중에 사복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 고대 한국의 여신 관념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2. 『삼국유사』의 선도성모와 서술성모⁵⁾

『삼국사기』는 신라본기 첫머리에 신라의 기원을 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남으로써 시작했다고 기록하였다.⁶⁾ 그리고 신라본기 마지막 신라 역사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사론에서도 신라 왕실 시조들이 卵生과 天降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론의 다음 부분에서 김부식은 1116년에 송에 갔을 때 송의 관리로부터 해동의 시조왕을 낳고 선도산의 地仙이 되었다는 여신을 소개받았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리고는 김부식은 이 시조모가 당시 고려에서 숭앙하던 고구려의 시조모 ‘東神聖母’일 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기술하였다.⁷⁾

5) 『삼국유사』에서 서술성모와 선도성모는 경주 서악의 여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였다. 한반도에 도교가 전래된 유래는 오래되었지만, ‘선도성모’라는 도교적 호칭은 김부식이 소개한 선도산 여신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나희라, 2021 앞의 논문 참조). 그 이전의 경주 서악 명칭은 서술(혹은 서연)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서술성모와 선도성모가 같은 신격을 가리키는 호칭이더라도 역사문화적 배경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라 이래의 전통적 서악 여신에 대해서는 서술성모를 사용하고, 선도성모는 주로 송으로부터 소개받은 선도산 여신에서 비롯된 호칭으로 사용할 것이다.

6) 『三國史記』卷第1, 新羅本紀第1, 赫居世居西干,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7) 『三國史記』卷第12, 新羅本紀第12, 敬順王, “論曰. 新羅朴氏·昔氏皆自卵生, 金氏從天入金櫃而降, 或云乘金車. 此尤詭怪, 不可信, 然世俗相傳, 爲之實事. 政和中, 我朝遣尚書李資諒入宋朝貢, 臣富弼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 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

이렇듯 『삼국사기』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신라의 시조신화에는 시조모가 개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부식이 송에서 소개받은 시조모 이야기를 신라편의 사론에 기록해놓음으로써 신라의 시조신화에 시조모 존재가 고려될 계기를 제공했다.⁸⁾ 관찬 사서로 공식적 역사인식의 틀을 제공했던 『삼국사기』 신라편에 중국에서 소개받은 시조모 이야기가 소개된 이후, 선도산 여신은 신라의 시조모로 안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시조모 신화이다.

(가) 「신라시조 혁거세왕」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거기를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내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니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에서 목욕시키니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고 밝았다. 그래서 그를 혁거세왕이라 이름하였다. 아마도 우리말일 것이다. 불구내왕이라고도 하니 광명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① 說者는 “이는 서술성모가 낳은 것이다. 중국 사람이 선도성모를 찬미하는 글에 “현명한 자를 낳아 나라를 시작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② 그리고 보면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은 것까지 본다면 서술성모의 현신이 아닌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왕위의 칭호는 거슬감이라 하였다. ③ 혹은 거서간이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처음 입을 열 때에 자신을 일컬어 ‘알지거서간이 크게 일어난다’ 하였으므로, 그의 말에 따라 이렇게 불렀으니 이로부터 임금의 존칭으로 되었다.⁹⁾

像也。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有娠賢肇邦之句。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8) 1116년 고려 사절단의 접대 책임을 맡았던 송의 관리가 고려 사절단에 중국 황실 출신의 해동 시조모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당시 신흥 금을 이용하여 요를 치기 위해 고려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송 조정에서 시조 출자와 관련한 고려와 금의 외교관계에 주목하여 송과 고려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의도와 연관해서 설명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희라, 2021, 앞의 논문, 8~15쪽 참조.

9)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新羅始祖 赫居世王.

(나) 『선도성모수회불사』

① 진평왕대에 지혜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어진 행실이 많았다. 안흥사에 살면서 새로 불전을 수리하려다가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꿈에 한 女仙이 아름다운 자태로 구슬로 머리를 꾸미고 와서 위로하여 말하였다. “나는 仙桃山神母이다. 네가 불전을 수리하려는 것이 반가워서 금 10근을 시주하여 돕고자 하니, 내 자리 밑에서 금을 찾아가다 主尊三像을 장식하고, 벽에다가 53불과 六類聖衆과 여러 天神과 五岳神君을 그리도록 하라. 또한 매년 봄기를 두 계절의 10일간 선남선녀들을 모아 일체중생을 위하여 점찰법회를 열고 이를 향규로 삼아라.” 지혜가 놀라 깨어 무리를 이끌고 신사의 자리 밑을 파서 황금 160량을 얻어 일을 잘 성취하여 모두 신모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 사적은 남아 있으나 법사는 폐지되었다.

② 신모는 본래 중국 帝室의 딸로 이름은 사소인데 일찍이 신선의 술법을 배워 해동에 와서 오래 머물고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 황제가 술개의 발에 묶어 서신을 보내 가로되 “술개가 머무는 곳을 집으로 삼으라” 하였다. 사소가 서신을 보고 술개를 놓아주니 날아서 이 산에 이르러 머무르므로 따라와서 이곳에 거주하여 地仙이 되었다. 이 때문에 산 이름을 西蔭山이라 하였다.

③ 신모가 오랫동안 이 산에 웅거하며 나라를 진호하여 신령한 이적이 매우 많았다. 나라가 선 이래로 항상 三祀의 하나로 하였고 서열도 여러 望祭 위에 있었다. 제54대 경명왕이 매사냥을 좋아하여 일찍이 이 산에 올라 매를 놓았으나 잃어버렸다. 신모에게 기도하며 “만약 매를 찾으면 꼭 봉작을 하겠습니까”라 하였더니 잠시 뒤 매가 날아와서 책상 위에 앉았다. 이로 인하여 신모를 대왕으로 봉작하였다.

④ 신모가 처음 辰韓에 와서 성스러운 아이를 낳아 그가 동국의 첫 임금이 되었으니 대개 혁거세와 알영 두 성인이 그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계룡이니 계림이니 백마 등으로 일컫는바 닭이 서쪽 방위에 속하기 때문이다.¹⁰⁾

⑤ 신모는 일찍이 여러 天仙을 부려 비단을 짜게 하고 붉은 물감을 들여 朝服을

10) 밑줄 친 부분(故稱雞龍雞林白馬等雞屬西故也)의 해석은 썩 분명하지는 않다. 끊어 읽기를 달리하여 ‘혁거세의 탄생에서 이야기된 계룡·계림·백마 등의 鷄는 방위로 서쪽을 가리키는 酉와 통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다(村上四男, 1995, 『三國遺事考證 下之三』, 塙書房, 43쪽). 필자는 본 논문 전체의 논지와 연관하여 ‘혁거세와 알영 탄생 이야기에서 계룡·계림·백마 등이 들어간 이 유는 닭이 서쪽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만들어 그 남편에게 주었다. 나라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그 신이한 영험을 알았다.

⑥ 또한 國史에서 史臣이 말하길, “김부식이 정화 연간에 사신으로 송나라에 들어가 우신관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의 한 집에 여신의 상이 모셔져 있었다. 관반학사 왕보가 말하기를, “이것은 귀국의 신인데 공은 아는가?”라고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옛날에 중국 제실의 딸이 바다를 건너 진한에 이르러 아들을 낳아 해동의 시조가 되었고, 그녀는 지선이 되어 오랫동안 선도산에 있으니 이것이 그 상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송나라 사신 왕양이 우리나라[고려]에 와서 東神聖母를 제사지내면서 올린 제문에 ‘어진 인물을 낳아 나라를 시작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⑦ 이제 금을 시주하여 부처를 받들게 하고 중생을 위하여 불법을 열고 구원의 길을 만들었으니, 어찌 장생의 술법을 배워 어두움 속에만 사로잡힌 것이라.¹¹⁾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삼국유사』 기이편의 (가)에서도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탄생했다는 신화를 소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편찬자의 주석 중 (가)-①에서 신라 시조신화에 관해 언급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성모가 시조를 낳았고 서술성모는 곧 선도성모라는 서술성모 시조모설을 소개했다.¹²⁾ (가)-②는 편찬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밝힌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①에서 더 나아가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도 서술성모가 낳았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가)는 해동의 시조를 낳았다는 선도성모를 송으로부터 소개받아 그녀를 신라사에 이입시키면서 서술성모와 동일시하고, 그 시조모의 신성함을 설명하는 가운데 시조왕 뿐만 아니라 공식 역사에서 시조왕의 왕비로 기록된 알영까지도 서술성모가 낳았다고 한 것이다.¹³⁾

11) 『三國遺事』 卷第5, 感通第7, 仙桃聖母隨喜佛事.

12) 이 說者의 설명에서 ‘중국 사람이 …… 구절이 있으니’ 부분은 『삼국사기』 신라편 사론의 기록에서 비롯한 해석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사론에서 김부식은 왕양의 동신성모제문을 들어 동신성모가 선도산 여선일 것이라고만 하였다(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그러므로 설자의 설명은 『삼국사기』 이후 동신성모를 아예 선도성모로 고정시키고 아울러 이를 또 다른 시조모 전승의 주인공인 서술성모와 일치시키는 설명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13) 이는 편찬자 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 당시 서술성모의 전승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선도성모 이야기는 (나) 「선도성모수회불사」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신라의 시조모 신화로 소개되었다. (나)는 안흥사 불전 중수와 점찰법회의 연기 설화로, 그 연대가 신라 진평왕대로 설정된 이야기이다. 이를 조금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나)-①은 「선도성모수회불사」의 중심 내용으로, 진평왕 때에 선도산의 신모가 사찰의 불전을 수리하고 점찰법회를 개최하도록 도왔다고 하였다. (나)-②는 ‘수회불사’한 선도성모의 정체를 설명하였다. 그녀는 본래 중국 제실의 딸로 해동에 와서 솔개가 잡지한 서연산에 좌정하여 산신이 된 존재라고 하였다. (나)-③은 신모가 매를 부리는 등 신령한 이적이 많아 국가적 숭앙의 대상이었을 정도로 뛰어난 여신이었음을 말하였다. (나)-④는 편찬자가 이 여신의 신성함을 부연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성함은 바로 여신이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와 알영 二聖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탄생신화에 계룡이나 계림, 백마가 들어가 있는 것은 鷄(그리고 白色)가 서쪽에 속하기 때문으로, 이는 서연산의 여신이 바로 시조모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나)-⑤는 다시 신모의 신령한 이적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신모의 이적을 설명한 (나)-③와 이어지지 않고 (나)-④ 뒤에 온 것은 혁거세와 알영이 남매이면서도 부부인 신령스러운 관계였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¹⁵⁾ 그리고는 (나)-⑥에서 선도성모의 권위의 기원을 역사적으로도 확인시키기 위해 『삼국사기』 신라편 사론의 기록을 옮겨놓았다. 마지막으로 (나)-⑦에서 본래 도교의 여신이었던 그녀가 또한 불교에 귀의하여 불사를 도운 것이라고 정리를 하였다. 결국 이 기사는 중국에서 도래하여 신라의 시조모가 되었으며 원래 도교의 신이었던 위대한 여신이 오래전 신라시대에 불사를 도왔다는 이야기로써 불교의 뛰어남을 드러낸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다.¹⁶⁾ 중국이라는 중세적 문명의 가치, 신라라는 역사적 가치, 그리고 도교와 불교의 보편종교

14) 「선도성모수회불사」의 항목 분석은 김종군, 2009, 「선도성모 설화의 변개 양상과 그 의미」, 『온지논총』 23에서 착안하여 필자 나름의 분석을 한 것이다.

15) 이에 대해서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16) 윤미란, 2007, 「선도성모 서사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1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2쪽; 김종군, 2009, 앞의 논문, 60쪽 참조.

의 가치를 모두 체현하고 있는 위대한 여신의 ‘수희불사’를 이야기한, 『삼국유사』 편찬자의 불교 예찬 이야기라 하겠다.¹⁷⁾

선도성모가 (가)에서는 서술성모와 동일시되었는데, (나)에서는 서연산의 신모라 하였다.¹⁸⁾ 서연은 서술의 다른 호칭으로 신라시대 경주 일대의 서악으로 여겨졌다.¹⁹⁾ 선도성모가 신라의 역사와 지리공간에 좌절할 때 선도산은 선도를 관장하는 서왕모가 거처하는 곤륜산이 곧 서쪽 방위에 있는 서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신라시대 경주의 서악에 비정되었다.²⁰⁾ (나)에서는 산신이며 시조모인 성모의 성격에 대해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여기에서도 (가)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시조왕과 왕비 모두를 시조모의 소산으로 설명하였다.²¹⁾

17) 선도성모 이야기는 김부식이 송에서 선도산 여신 이야기를 소개받은 이후 고려 사회에 수용되어 신라사에 좌절하게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선도성모수희불사』에는 그 바탕에 신라 시대 이래의 전승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고려 시대의 역사문화적 상황과 당대인들의 인식과 관점이 개입되었다. 불교를 옹호하고 홍보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야기인 만큼 여기에는 당시 고려 불교계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도성모는 원래 송에서 소개될 때 선도산에 머물러 지선이 되었다는 도교의 여신 출신이었으므로 그녀에 대한 관심은 고려시대 도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교가 전래된 것은 고려 이전부터였지만, 고려시대의 도교는 특히 예종 때 북송의 도교를 수용한 후 크게 융성하여 사상·문화적으로 불교에 못지않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양은용, 1994, 『도교사상』, 『한국사』 16(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87쪽). 도교와 경쟁 관계에 있던 불교계에서는 도교의 여신이 고려 이전의 역사에서부터 불교를 옹호하였다는 이야기 요소를 드러냄으로써 불교의 우위를 보이고자 했던 것 같다. 선도성모가 후원했다는 점찰법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점찰법회가 성행하였던 고려 불교계의 관심이 반영되어 선택된 것이다(남동신, 2007,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성』, 『일연과 삼국유사』(일연학연구원편), 신서원, 106~110쪽).

18) 고대의 시조모는 聖母 혹은 神母 등으로 불렸다. 선도산신과 지리산신이 성모와 신모로 모두 불렸던 것으로 보아(자료 (나)와 『佔畢齋集』詩集 第10卷, 詩『禱雨聖母廟歸途遇雨』, 참조), 성모와 신모는 원초적 대모신의 성격을 가진 신성한 여신을 표현한 한자문화권의 일반적 용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교의 여신에게도 성모의 호칭을 붙였다. 이러한 여신 관념은 세속에에도 적용되어 위대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에게 성모의 칭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래서 석가의 어머니를 성모라 부르듯 임금의 어머니를 성모라고 높여 불렀다.

19) 서술의 述은 ‘수리’의 음사이며 서연의 薦은 새 이름 ‘수리’를 이두식으로 혼사한 것으로, 모두 岳 또는 峯의 古語인 ‘수리’를 가리킨다. 김상기, 1964, 『國史上에 나타난 建國說話의 檢討』, 『학술지』 5-1, 건국대학교, 23쪽.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는 선도산이 주명칭으로 고정되고 신라 때 서악, 서술, 서형, 서연으로 불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1卷, 慶尙道 慶州府 山川 참조.

20) 김태식, 2007, 『고대 동아시아 서왕모 신앙 속의 신라 선도산성모』, 『문화사학』 27, 413쪽; 정재서, 2020, 『한국의 서왕모 수용과 그 요인』, 『한국언어문화』 73, 414쪽; 나희라, 2021, 앞의 논문, 22쪽 참조.

21) 이는 유교의 중세적 합리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삼국사기』의 시조신화 기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삼국유사』에 와서 (가)와 (나)를 통해 중국 기원의 선도산 여선은 경주 서술의 산신이자 신라의 시조모가 되었다. 공간적으로 선도산이 서술산에 비정될 때 서쪽 방위가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신화와 역사로서 선도성모가 신라의 시조모로 될 때 연결 고리가 되었던 것도 서쪽 방위의 문제였던 것 같다. (가)에서 계룡은 알영을 낳은 선도성모의 현신이라 하였다. 그 이유를 (나)-④에서 설명하고 있다. 계는 서쪽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영을 낳은 계룡은 서악의 여신 선도성모가 현신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계림, 백마 등 신라 시조신화에 등장하는 요소들 역시 선도성모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²²⁾

(다) ① 이날 사랑리 알영정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여자아이를 낳으니 모습은 매우 고왔다. 그러나 입술이 닭의 부리 같은지라 월성 북쪽 냇물에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빠져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그 냇물 이름도 撥川이라 하였다. 남산 서쪽 기슭에 궁실을 짓고 두 신성한 아이[二聖兒]를 모셔 길렀다. 남자아이는 알에서 나왔는데, 알은 바가지같이 생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가지를 杼이라 하였으므로 성을 박으로 하였다. 여자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로 이름을 지었다. 두 성인[二聖]의 나이 십삼 세가 된 오봉 원년 갑자에 남자는 즉위하여 왕이 되고 여자를 왕후로 삼았다. 국호를 서라벌 또는 서벌이라 하고 혹은 사라 또는 사로라고도 했다.

② 처음에 왕이 계정에서 출생한 까닭에 혹은 계림국이라고 하니 계룡이 상서를 나타낸 까닭이었다.

③ 일설에는 탈해왕 때에 김알지를 얻으면서 숲속에서 닭이 울었으므로 나라

새로운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다.

22) 西方은 음양오행설에서 금의 방위이고 그 상징색은 白色이며, 십이지에서는酉에 해당하고 그 상징 동물은 鷄가 된다. 따라서 계룡·계림·백마는 모두 서쪽 방위의 상징이다. 십이지와 동물이 짝 지워진 것은 중국에서 음양오행사상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출현하였을 것이나, 이후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 방위와 시간의 수호신격을 얻어 구상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능묘에 십이지에 해당하는 각 동물의 모습을 석상으로 만들어 장식하는 독특한 양식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馮友蘭, 1983, 『陰陽五行家的具有唯物主義因素的世界圖式』, 『中國哲學史新編』, 北京: 人民出版社(양계초·풍우란 외 지음, 김홍경 편역, 1993,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에 재수탁); 손경수, 1962, 『한국 십이지생초의 연구』, 『이대사원』 4, 이화여대 사학회 참조.

이름을 계림으로 고쳤다고 한다.²³⁾

(다)는 앞의 자료 (가)에 이어진 기술이다. (다)-①에서는 혁거세에 이어 알영의 탄생이 있고, 두 성스러운 존재가 결합함으로써 건국이 완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②와 ③은 (다)-①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시조의 탄생과 연관된 국호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였다. (다)-②에서 왕이 계정에서 났다고 했는데, 앞에서 알영의 탄생을 기술하였고 또 알영의 탄생이 닭과 연관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王’은 ‘后’의 잘못이거나 ‘왕’字 밑에 ‘후’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⁴⁾ 그러나 (다)-②의 설명이 알영의 탄생 바로 뒤에 나온 것이 아니라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을 차례차례 설명하고 이후 이 둘의 결합으로 나라가 만들어졌음을 모두 설명한 다음에 기술한 것이므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²⁵⁾ (나)-④에서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을 말하면서 계룡·계림·백마를 모두 언급한 것처럼, (다)-②도 두 시조[二聖]의 탄생신화와 관련한 설명이라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③에서 계림의 호칭이 김알지와 연관된다는 ‘일설’을 소개한 것은 혁거세(와 알영) 탄생신화에 계림이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²⁶⁾ 이렇게 본다면 시조왕과 왕비의 탄생 신화에 계정·계림·계룡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 장소가 각기 나정과 알영정이라 했으나, 일설에는 이들 우물이 계정으로도 불렸던 전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⁷⁾ 자료 (가)에서는 알영이, (다)에서는 혁거세가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고 탄생시킨’ 시조라 하니, 혁거세와 알영 모두 계룡의 소산이라는 전승도 있었던 것 같다.²⁸⁾

23)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新羅始祖 赫居世王.

24) 이병도 역주, 1982, 『原文兼譯註 三國遺事』(수정판), 廣書出版社, 196쪽.

25) 三品彰英은 이를 ‘왕’으로 보이도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시조적 존재라는 것, 혹은 母子神의 탄생이라는 오래된 신화 전승의 흔적이라고 보면 설명이 된다고 보았다(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証 上』, 塙書房, 446쪽). 필자도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26) 사실 알지 신화는 혁거세 신화와 아주 유사하다. 알지 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혁거세 신화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약간 언급할 것이다.

27) 알영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는 것은 알영의 이름을 딴 우물 알영정이 곧 닭의 이름을 딴 계정이기도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혁거세의 우물 나정도 자료 (다)-②처럼 계정으로 불리는 전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상 『삼국유사』의 기록은, 신라 시조신화에 등장하는 계룡·계림·계정의 닭은 서쪽 방위를 가리켜 서악의 여신과 연관이 있으므로 이들을 매개로 탄생한 혁거세와 알영은 계룡의 현신인 성모의 소산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혁거세의 탄생에 중요한 인도자 역할을 했던 백마도 서쪽 방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로써 시조신화에 등장하는 시조 탄생의 징조는 모두 서악 성모의 현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유래한 선도성모는 서악을 매개로 경주의 서술성모가 되고 또 시조 탄생신화의 닭과 백마를 매개로 해서 신라의 시조모가 되었다. 이러한 해석과 적용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12세기 초 김부식이 송으로부터 소개받은 선도산 여선 이야기를 『삼국사기』 신라편 사론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이후 고려사회에서 역사적이며 신화적인 상상의 자극을 받으면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문헌이나 구비전승을 통해 알려져 있던 신라의 시조신화에 선도성모를 집어넣는데 연결 고리가 되었던 닭과 백마에 대한 음양오행과 간지의 해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에서 『삼국유사』 편찬에 이르기까지 130여 년의 시간 동안 누군가(혹은 집단적 사람들)의 해석이 있었을 수 있고, 그것이 회자되고 전승되던 가운데 『삼국유사』 편찬자의 수공을 거쳐 채록된 것일 수도 있다.²⁹⁾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시조 탄생과 관련한 신화에서 계룡·계정·계림·백마의 요소를 뽑아보면 <표 1>과 같다. 이에 의하면 선도성모를 시조모로 정착시킨 근거가 된 계룡 등의 요소는 확실히 『삼국유사』의 신화에서 두드러진다.³⁰⁾ 그렇다면 『삼국유사』의 신화는 선도성모 이야기를 신라의 시

28)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을 공통의 기원을 가진 하나의 사건이라는 신화적 관념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조신화류가 전승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29) 김종근은 이러한 해석과 신화적 변개가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김종근, 2009, 앞의 논문, 48~55쪽.

30) 『삼국사기』에서는 혁거세 탄생을 인도자를 단지 '馬'라고만 했고 서방을 표시하는 '白'은 없다. 『삼국유사』 단계에서 와서 서방을 드러내기 위해 '白'자가 첨가된 것일까?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거란의 시조신화에 白馬를 탄 神人이 나오고, 흉노를 비롯한 북방 민족의 대제나 맹약 때의 희생물로 백마가 자주 등장한다(박원길, 1998, 『북방민족의 샤머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214, 220쪽). 신라의 김유신도 백마로 하늘에 제사지냈고, 당·백제·신라의 맹약에서도 백마

조신화와 결합시키기 위해 원래는 없던 계룡 등의 요소를 일부러 집어넣은, 『삼국사기』 이후에 새로이 변개된 상태의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④나 (다)-②를 보면 『삼국유사』 편찬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 신라의 시조왕과 왕비의 탄생신화에 원래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못했던 신라 시조 신화의 내용이나 요소들이 선도성모 이야기와 연관하여 새롭게 주목받게 되고, 이것이 음양오행설이라는 사고방식의 도움으로 선도성모가 신라의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 자리잡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신화 기록에서는 혁거세·알영의 탄생과 닭이 연관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에 비해 합리적 역사 서술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신화의 서술도 간략하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신화 내용은 원래 신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삼국사기』에 실린 시조신화는 신라시대에 정리된 공식적 신화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공식화한 시조신화와는 다른 신화들이 고려시대까지도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삼국사기』에서 계림은 모두 알지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다.³¹⁾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 신화에 계림이 언급되고 있다. 원래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 신화에 계림의 요소가 있었는지 모른다. 혁거세 탄생과 관련하여 혁거세가 알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 때 스스로 “알지거서간이 일어난다”고 하여 그로써 거서간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었고,³²⁾ 알지의 탄생을 혁거세의 탄생과 같아 혁거세와 같은 ‘알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알지 신화에서 하늘에서 빛이 지상으로 드리웠고 그 빛이 서린 곳에서 시조가 탄생했다는 것, 알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동물들이 기뻐하며 따랐다는 것은 혁거세 신화와 구조가 똑같

를 희생물로 했다.

31)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서 ‘一說’은 『삼국사기』에 실린 알지신화를 말한다.

32)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新羅始祖 赫居世王, “初開口之時, 自稱云, 闕智居西干一起, 因其言稱之, 自後爲王者之尊稱.”

다.³³⁾ 김알지 신화는 김씨 집단이 신라에서 최고위를 차지한 이후 자기들 원래 시조신화에다가 신라의 국조인 혁거세 신화의 요소를 빌려와 가미함으로써 정리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³⁴⁾ 신라는 외국에까지 닭을 숭상한다고 알려졌었다.³⁵⁾ 김씨 집단은 알지 신화를 정리할 때 닭의 상징을 독점하고자 했고 시조왕비인 알영에게도 닭의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자기들 연원을 넉넉히 올리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듯 다양하게 전승되던 혁거세와 알영의 시조신화 중에는 계룡, 계림, 계정 등 닭과 관련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본 『삼국유사』의 편찬자가 여기저기서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과 관련한 닭의 요소들을 선도성모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상으로 선도성모가 상징하는 서쪽 방위의 이상향을 매개로 신라 이래 경주의 서악이었던 서술산의 성모가 되고 그 탄생신화에 서쪽 방위를 상징하는 닭의 요소를 지닌 혁거세와 알영과 연결되어 신라의 시조모가 되었던 사정을 추정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적 변개는 단지 선도성모가 지닌 중국의 권위를 신라사에 적용하려는 어떤 의도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선도성모로 변신한 전래의 서술산 여신 관념과 이야기의 바탕에 이상향의 주재자이며 시조모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서쪽 방위라는 간단한 연결고리만으로 이들이 쉽게 결합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33)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金閼智 脫解王代, “永平三年庚申八月四日, 瓠公夜行月城西里, 見大光明於始林中. 有紫雲從天垂地, 雲中有黃金橫掛於樹枝, 光自橫出, 亦有白雞鳴於樹下. 以狀聞於王. 駕行其林, 開闢有童男, 卧而即起, 如赫居世之故事, 故因其言, 以閼智名之.”

34) 채미하, 2016,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신라사학보』 37, 27~29쪽; 나희라, 2016, 『신라의 건국신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2, 신라의 건국과 성장』, 경상북도, 58쪽.

35) 인도에서는 신라를 ‘鷄貴’라 불렀다고 한다. 691년에 당나라 義淨이 찬술한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는 ‘계귀’가 고려국이라 하였으나 이는 신라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후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면서 천축인이 ‘계귀’라 부르는 대상을 ‘海東’으로 고쳐 썼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복순, 2015,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과 신라인』, 『신라문화』 45, 178~180쪽 참조.

3. 원초적 여신 관념과 서술성모

인류의 초기 단계에서 여성이 지닌 생식력은 세상의 생명과 시간 흐름의 신비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되었다.³⁶⁾ 이런 신비를 간직한 여성성은 인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핵심적인 종교신앙의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사시대와 초기 역사시대의 종교신앙에 관한 자료로부터 여성성을 관장하는 강력한 여신에 대한 관념과 신앙을 찾아볼 수 있다.³⁷⁾ 여성성의 중심적 상징은 그릇이다. 그 그릇은 태어나지 않은 것, 태어난 것, 죽은 것 모두를 안고 있다.³⁸⁾ 따라서 원초적 여신은 모든 것을 품고 조정하는 ‘위대한 여신[Great Goddess]’ 혹은 ‘위대한 어머니 신[Great Mother]’이다. 또한 모든 것을 낳고 기르며 동시에 죽음을 초래하고 죽은 것을 품는 ‘대지의 여신’이다. 그릇이며 대지의 성격을 통합하는 산은 위대한 어머니로 숭배된다.³⁹⁾

서술성모는 선사시대 이래의 원초적 여신 관념과 숭배를 간직한 여신이였다. 자료 (나)-②에 의하면 그녀는 본래 중국 제실의 딸로 이름은 사소이고 해동으로 와서 솔개의 집지로 좌정하고 지선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녀가 중국 제실의 딸이라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소개된 선도산 여신 이야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원래의 신화에서는 새를 부리는 여신, 그래서 새와 동격일 수 있는 여신이 서술산에 좌정한다는 이야기였을 것이다.⁴⁰⁾ (나)-③의 다른 전승에 의하면 그녀는 매를 품고 부리는 여신이기도 했다. 원초적인 ‘위대한

36) Marija Gimbutas, 1991, *The Language of the Goddess - unearthing the hidden symbols of western civilization*,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마리아 김부타스 지음, 고혜경 옮김, 2016, 『여신의 언어』, 한겨레출판, 210쪽).

37) Denise Lardner Carmody, 1979, *Women and World Religion*(D. L. 카모디 지음, 강돈구 옮김, 1992, 『여성과 종교』, 서광사, 23~45쪽).

38) Erich Neumann, 1974, *Die Grosse Mutter*, Patmos Verlag: Düsseldorf und Zürich(에리히 노이만 지음, 박선화 옮김, 2007,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 61~69쪽). 원초적 여신 관념에 여신의 권능이 생명과 죽음의 두 영역에 모두 걸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39) 에리히 노이만, 2007, 앞의 책, 69쪽; 宮家準, 1973, 『山岳信仰』, 『宗教學辭典』(小口偉一・堀一郎監修),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19~220쪽.

40) 원초적 여신관념에서 여신은 모든 동물들의 여신이기도 한데, 새의 모습을 지니거나 새를 부리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에리히 노이만, 2007, 앞의 책, 432~455쪽; 마리아 김부타스, 2016, 앞의 책, 316~317쪽.

여신'의 영적 힘과 기능은 동물, 특히 조류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았다.⁴¹⁾ 고대 중국의 위대한 여신 서왕모는 靑鳥와 三足鳥를 거느리며,⁴²⁾ 유화는 비둘기를 부렸고, 알영은 닭의 부리를 가진 모습이었다.⁴³⁾ 치술신모도 솔개, 올빼미류의 새와 연관되는 '수리'의 여신이다.⁴⁴⁾ 원초적 여신은 새뿐만 아니라 동물의 주인으로서 동물의 모습으로, 혹은 동물의 수행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단군의 어머니는 곰이었고, 신라인 김현에게 생명의 힘을 부여해준 것은 호랑이였으며, 동물의 주인 아르테미스는 곰의 여신이었고, 이시스는 신성한 암소였다.⁴⁵⁾ 생명과 죽음을 아울러 관장하는 서왕모는 음과 양을 상징하는 龍虎座에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⁴⁶⁾

서술성모는 서쪽의 산, 서악에 좌정한 여신이라 하였다. 서술은 통일 이전부터 경주 지역의 서악이었다. 서쪽 방위는 선도산 여선이 신라의 역사문화에 이입되어 서술의 여신과 대응될 때 매개 근거가 되었다고 했는데, 선도산 여선과 서술산의 여신이 모두 서쪽 방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선도산 여선인 서왕모는 서방 곤륜산에 거주하며 삶과 죽음을 관장했다. 원초적 관념에서 서방은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한 대극되는 것을 아우른 세계의 장소이었는데, 세계 창조 이후에는 해가 지는 곳, 빛이 사그라지는 곳으로 죽음의 방위가 되었다.⁴⁷⁾ 원초적 여신은 삶과 죽음, 모두

41) Joseph Campbell, 2013, *Goddesses - mysteries of the feminine divine*, California: Joseph Campbell Foundation, New World Library(조지프 캠벨 지음, 구학서 옮김, 2016, 『여신들 - 여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잊혔는가』, 청아출판사, 89~90쪽).

42) 『山海經』, 『海內北經』(정재서 역주, 1996, 『산해경』(신장판), 민음사, 271쪽), “西王母梯几而戴勝杖, 其南有三清鳥, 爲西王母取食. 在崑崙虛北.”; 『史記』卷123, 大宛列傳第63(標點校勘『史記全』, 1975, 경인문화사 영인, 3164쪽), 索隱引『括地圖』, “崑崙弱水非乘龍不至. 有三足神鳥, 爲王母取食.”

43) 가야의 시조모라는 정견주도 알을 낳았다는 전승이 있어 새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보인다. 전호태, 2018, 앞의 논문, 8쪽.

44) 서술이 서연이기도 했던 것처럼 치술의 '술'도 높은 곳의 '수리'이며 새의 '수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의 신령은 새를 부리는 산신이었을 것이다. 김상기, 1964, 앞의 논문, 23쪽 참조.

45) 에스터 하딩, 1996, 앞의 책, 91쪽. 원래 신성한 힘을 동물로 표현하던 것에서 그 동물이 신의 정령으로, 나중에는 동물들이 여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념되었다. 고대 한국에서 호랑이가 신격으로 숭배되다가 후에 산신의 수행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46) 용호좌에 앉은 서왕모는(中國畫像石全集編輯委員會, 2000, 『中國畫像石全集』(第7卷 四川漢畫像石), 河南美術出版社·山東美術出版社 참조) 신석기시대의 곡물 상자 안에서 발견된, 두 마리 동물의 호위를 받으며 '왕좌에 앉아 출산 중인 여신'의 상을 연상케 한다. 조지프 캠벨, 2016, 앞의 책, 74~75쪽.

를 관장하는 존재였지만, 남성의 힘이 강해지면서 여신 관념이 수정되고 희박해지는 가운데서는 세계를 온전하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나누어 생산의 힘만 가지거나 또는 죽음의 세계만을 관장하는 존재로 분화하기도 했다.⁴⁸⁾ 원초적 여신은 대지의 여신이며 또한 달의 여신이기도 했는데, 달은 탄생과 죽음, 재탄생을 반복하여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아울러 관장한다. 그래서 중국의 달의 여신 항이는 장생불사약을 먹고 두꺼비가 되어 달에 가서, 달이 상징하는 죽음과 재생을 관장하게 되었다. 달은 태양과 대극이면서도 동시에 합일을 이루어야 할 존재로서 태양의 동방에 대해 서방의 상징이기도 했다.⁴⁹⁾

신라에서 서악은 여성성, 즉 원초적 여신의 힘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선도성모가 불사를 도왔다는 안흥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선도성모가 관장하는 지역, 즉 선도산 자락 어딘가에 위치한 비구니 사찰이었던 것 같다.⁵⁰⁾ 선덕여왕이 겨울에 玉門池에서 개구리가 모여 우는 것을 해석해 서쪽 교외의 女根谷을 수색하여 백제 군사를 물리치라고 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자는 陰이어서 백색과 서쪽 그리고 분노의 감정과 연결된다는 음양오행설적 설명을 뒤에 덧붙이기는 했지만,⁵¹⁾ 더 깊은 바탕에는 서쪽 방위와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원초적 여신의 상징이 깔려 있는 것일 수 있다.⁵²⁾ 서술성모가 서악을 관장하는 것에 대해 동악

47) 에리히 노이만, 2007, 앞의 책, 297쪽.

48) 바빌로니아의 여신 자메 에레스키갈과 이시타르는 한쪽은 지하 죽음의 세계를, 또 한쪽은 지상 생명의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지만, 이 둘은 원초적으로는 생명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였던 것이 분화된 것이다. 한국 무속의 신 바리데기도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이지만 또한 생명을 살리는 신이기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나희라,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119쪽 참조.

49) 『搜神記』卷14, 嫦娥奔月(干寶 原著 黃濬明 注譯, 1991, 『搜神記 全譯』,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395쪽), “羿請無死之藥于西王母, 嫦娥竊之以奔月. 將往, 枚筮之于有黃. 有黃占之曰, 吉. 翩翩歸妹, 獨將西行. 逢天晦芒, 毋恐母惊, 後且大昌. 嫦娥遂托身于月, 是爲嫦娥.”

50) 주보돈, 2020, 『신라 왕경의 이해』, 주류성출판사, 385쪽.

51) 『三國遺事』卷第1, 紀異第1, 善德王 知幾三事, “於靈廟寺玉門池, 冬月衆蛙集鳴三四日. 國人恠之, 問於王, 王急命角干闕川弼吞等, 鍊精兵二千人, 速去西郊, 問女根谷, 必有賊兵, 掩取殺之. 二角干既受命, 各率千人問西郊, 富山下果有女根谷. 百濟兵五百人, 來藏於彼, 並取殺之. …… 當時群臣啓於王曰, 何知花蛙二事之然乎. 王曰, …… 蛙有怒形兵士之像, 玉門者女根也. 女爲陰也, 其色白, 白西方也, 故知兵在西方. 男根入於女根則必死矣. 以是知其易捉.” 고대 중국에서 일찍부터 정리된 음양오행설의 五行과 방위, 색, 감정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의숙, 1993,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47쪽의 표를 참조. 오행 중 金은 秋-西-白-怒와 합치된다.

토함산은 탈해가 관장한다고 여겨졌던 것은⁵³⁾ 마치 중국에서 서왕모에 대해 동방의 남신 동왕공이 출현하여 짝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⁵⁴⁾ 서술은 서연산, 西兠山으로도 불렀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축성 기사나 지리지 기사를 제외하고는 서악에 관한 기록은 꿈이나 죽음 등 인간의 원초적 무의식의 상징에 관한 것이거나 신성성을 드러내는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⁵⁾

서악이 생명, 창조, 풍요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김유신의 여자 형제들인 보희와 문희와 얽힌 설화이다. 서형산(『삼국유사』에는 서악)에 올라가 오줌을 누어 온 나라를 잠기게 한 이상한 꿈을 꾸 보희가 그 꿈을 문희에게 팔았더니, 문희가 태종무열왕의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⁵⁶⁾ 오줌을 누어 온 나라를 잠기게 하는 꿈의 상징과 연관된 자매는 창조와 소멸을 관장하는 거대한 여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⁵⁷⁾ 그리하여 이들은 국가사회에 생명을 주었다. 김현과 짝을 지어 그를 출세시킨 암호랑이는 경주의 西山에 거처하였다고 한다.⁵⁸⁾ 이 서산을 서악으로 본다면 고려 태조의 조상인 호경과 짝을 지은 평나산신 암호랑이처럼⁵⁹⁾ 경주 서악의 산신도 호랑이라는 전승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선도성모수회불사』에서는 신성 표현의 인격화에 따라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나 원래 서악 여신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호랑이로 그려지는 동물의 주인이며 술개와 매

52) 김택규, 1985,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75쪽.

53) 주보돈, 2020, 앞의 책, 387쪽.

54) 원래 서왕모는 兩性具有的 존재였는데, 후에 음양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陰을 상징하는 달의 여신으로 정착하고 서왕모의 媿가 되는 존재로서 배우자이자 陽을 대표하는 태양신으로 동왕공이 새로이 창출되었다. Michael Loewe, 1982, *Chinese Ideas of Life and Death*, London: Routledge(마이클 로이 지음, 이성규 옮김, 1987, 『古代中國人の 生死觀』, 지식산업사, 138쪽).

55) <표 2> 참조. 고대사회에서 사열은 단순한 군사행위가 아니라 종교의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시조왕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정화의례를 행하던 알천에서 열병이 자주 열린 것은 알천이 聖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三品彰英, 1975, 앞의 책, 502쪽.

56)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第6, 文武王 元年;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太宗春秋公.

57) 민속의 구전설화 중 여성 신격으로써 마고할미는 대소변을 배설하여 산천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행위를 하는데, 여신이 창조신으로 관념되었음을 암시한다. 강진욱, 1993,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11~24쪽.

58) 『三國遺事』 卷第5, 感通第7, 金現感虎.

59) 『高麗史』, 高麗世系.

등의 날짐승과 함께 하는 원초적 여신의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경주 선도산 기슭에 무수한 바위구멍이 있는 바위[경주 서악동 바위구멍 암각화]가 있는데,⁶⁰⁾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바위구멍은 선사시대 이래 풍요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⁶¹⁾ 한반도 대부분의 바위산에서 이러한 구멍이 있는 바위들을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선도산의 바위구멍을 여신과 바로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 또 바위구멍을 만드는 신앙 행위는 근대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인 만큼 서악동 바위의 바위구멍이 신라인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특정 지을 필요는 없겠으나, 생명과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이 거처하고 있는 산자락에 오랜 흔적도 있는 적당한 바위가 있다면 신라시대에도 그 바위를 대상으로 여러 풍요의례가 이루어졌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⁶²⁾

서악의 여신은 신라인의 죽음에도 깊이 관여했다. 현재 경주 선도산 일대에는 태종무열왕의 무덤을 비롯한 왕릉과 다수의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다.⁶³⁾ 진성여왕은 죽어서 서악에 散骨되었다고 하고,⁶⁴⁾ 김인문은 죽어서 西原에 묻혔다고 했다.⁶⁵⁾ 신라인에게 서악은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원초적 여신에 대한 관념과 숭배 의식을 상기케 하는 신성한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서악은 어떤 신라인들에게는 최후에 돌아갈 곳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진성여왕을 서악에 산골했다는 것은 서악의 신성성과 여성성을 빌어 여왕의 죽음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선도산 정상 가까이의 큰 암벽에는 7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

60) 전호태·이하우·홍승지, 2020, 『한국의 바위구멍 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172~182쪽.

61) 황용훈, 1987,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민음사, 229~244쪽.

62) 신라인이 남긴 다양한 흔적을 간직한 울주 천전리각석에 ‘大禮 大母’로 판독할 수 있는 명문이 있는데, 이 명문이 신라인이 남긴 것이 확실하다면 신라인의 大母神에 대한 신앙의 증거로 봐도 좋겠다. 나희라, 2017, 『울주 천전리 각석과 신라인의 바위신앙』, 『신라문화』 50, 6쪽.

63) 전호태·이하우·홍승지, 2020, 앞의 책, 173쪽 표 참조.

64) 『三國遺事』 卷第1, 王曆, 第51代 眞聖女王.

65) 『三國史記』 卷第44, 列傳第4, 金仁問. ‘西原’은 월성 서쪽 선도산 일대에 새로이 능역으로 조성된 곳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차순철, 2021, 『경주 서악동고분군의 조성과 의의』, 『신라문화』 58, 307쪽.

는 높이 7m의 거대한 아미타여래가 협시불과 함께 새겨져 있다. 아미타여래는 서방 극락세계에 주재하는 부처인데, 불교에서 극락은 특히 죽은 자들을 위한 사후의 이상세계이다. 신라에서 서악의 여신이 생명을 품고 내어주어 풍요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죽음을 관장하고 다시 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원초적 여신으로 관념되었다면, 불교가 들어왔을 때 서방의 사후 이상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여래로, 또 도교가 들어왔을 때는 장생불사와 죽음을 관장하는 서악의 여선이며 선도산의 여선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신 관념을 또 하나의 거세된 상태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이 ‘사복 어머니’ 이야기이다. 『삼국유사』 「사복불언」에서 사복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뱀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암소였으며 지혜의 호랑이로 비유되었고, 중국에는 아들과 합일하여 지하의 이상세계로 돌아간 존재로 이야기되었다.⁶⁶⁾ 그녀는 서술성모보다도 더 많은 동식물과 연결되어 있다. 사복 어머니가 뱀, 암소, 호랑이 등 각종 동물과 관계 맺고 비유되었던 것은 그녀가 원형 상징으로서 위대한 여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복의 어머니는 세계의 진실을 알아버린 석가모니불에까지 비유되었다.⁶⁷⁾ 남편 없이 아들을 낳은 그녀는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스스로 갖추고 있는 ‘위대한 여신’ 자체임을 말해준다. 남자 없이 스스로 잉태하는 어머니 여신의 상징은 세계 도처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신라 화엄불교의 성인으로 추앙된 사복과 원효가 이끄는 장례의식을 거쳐 사복의 어머니는 아들과 합일하여 지하타계로 돌아갔다. 이는 그녀가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고, 자기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또한 자기에게 다시 가라앉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지의 여신이며 장례와 死者들의 여신이기도 함을 말하는 것이다.⁶⁸⁾

66) 『三國遺事』 卷第4, 義解第5, 蛇福不言.

67) 나희라, 2021, 「『삼국유사』 ‘사복불언’ 설화와 여신 관념」,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진인진, 161~166쪽.

68) 에리히 노이만, 2007, 앞의 책, 158쪽; Mircea Eliade, 1983,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Paris: Payot(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이계실 옮김, 1993, 『종교사 개론』, 까치, 165~166쪽). 중국의 창

원초의 서술성모 이야기에 이러한 신화소가 있었을지 모른다. 『삼국사기』 사론에 의하면 중국의 관리는 선도산 여신이 ‘不夫而孕’ 했다고 소개하였다. 중국에도 남편 없이 신령스러운 감응으로 신성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데,⁶⁹⁾ 이러한 모티프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보편적 원초적 여신 관념의 흔적이다.⁷⁰⁾ 『삼국사기』에서는 남편 없이 아이를 잉태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용납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중세적 윤리관으로 설명했으나, 『삼국유사』의 (나)-⑥에서는 『삼국사기』 사론의 선도산 여신 이야기를 거의 수록하면서도 ‘不夫而孕’ 요소는 빠뜨렸다. 『삼국유사』에서 여신의 이야기를 옮기면서 여신을 더욱 신성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를 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된 전승과 신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편찬자의 입장에서 (나)-④에서와 같이 여신이 자못하여 남편 없이 스스로 신성한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초적 여신에 대한 무의식적 관념이 작용하여 이를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유희와 주몽의 관계에 남편이며 아버지가 제대로 끼지 못한 것도 고대 한반도의 원초적 여신 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⁷¹⁾ 위대한 여신은 혼자 힘으로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거두어 다시 자신의 자궁 안에 품어 재생을 준비시키는 존재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성스러운 처녀’이거나 ‘남편을 원하지 않는 여인’이었고, 애인이 있거나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처녀로 여겨졌다.⁷²⁾ 신라의 신성한 여인인 세 여왕에 대한 전승에서도 이러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당 태종이 보낸 세 가지 색깔의 모란꽃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는

세신 여왕은 무덤 묘실이나 관을 장식했는데, 이는 여왕이 사후 세계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점을 말해준다(송정화, 2007, 『중국 여신 연구』, 민음사, 83~84쪽). 더불어 흥미로운 것은 서술성모와 사복 어머니 이야기가 모두 점찰회의 연기설화였다는 것이다. 점찰회는 참회라는 성찰적 종교 행위를 통해 좋은 삶과 죽음을 기대하는 의식이다. 아마도 생사의 근원과 신비를 간직한 원초적 여신이 속세의 인과를 살펴 참회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데 적당했을지 모른다.

69) 송정화, 2007, 앞의 책, 77~79쪽.

70) 에스터 하딩, 1996, 앞의 책, 169~176쪽.

71) 천혜숙, 1999, 『신화로 본 女系神聖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 17, 62쪽; 윤혜신, 2012, 『서술산 여신 신화』와 『선도산 여신 신화』의 서사 윤곽과 구비문학적 면모, 『구비문학연구』 34, 259~261쪽; 강진욱, 1993, 앞의 논문, 30~36쪽.

72) 에스터 하딩, 1996, 앞의 책, 169~171쪽.

것을 보고 선덕여왕이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는⁷³⁾ 세 가지 색깔의 모란꽃에 비유된 신라의 세 여왕이 모두 남편을 두지 않았다는 믿음(혹은 관념, 전승)을 바탕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실제로도 그녀들이 공식적인 남편을 두지 않았다고 여겨진다.⁷⁴⁾ 여기에 어떤 의식적, 제도적 배경이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세 명이나 되는 여왕을 배출했던 신라 사회에 원초적 여신 관념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작용했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악 여신의 영험함은 직조하는 능력에서도 보였다고 한다. 위대한 여신은 우주의 질서와 운명의 천을 짜는 존재였다. 그래서 실을 갖고 천을 짜는 것은 여신의 직능이며 또 여신을 위한 의례였다.⁷⁵⁾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라를 진호하는 영험함으로 국가제사의 대상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는 위대한 여신에게 부여된 창조와 죽음과 재창조라는 생명의 원리와 그 순환을 관장하는 원초적 성격, 그래서 그 원리와 질서를 짜는 능력, 동물과 동일시되거나 소통하는 원초적 성격,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운명을 관장하는 능력 등의 모습을 서술성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신라의 시조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아마도 신라시대 이래의 신화적 전승 가운데 위대한 여신으로부터 탄생하거나 길러진 신성한 존재가 신라를 건국하거나 일으켰다는 이야기, 즉 시조모 신화의 종류도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다. 알영을 발견하여 기른 老嫗,⁷⁶⁾ 탈해를 발견하고 기른 노구인 ‘赫居王之海尺之母’와⁷⁷⁾ 같은 존재들에서도 시조모 신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알영 자신도 신성한 여신의 성격을 부여받았는데, 그녀는 혁거세와 함께 二聖으로 숭앙되었으며, 유희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풍요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였다.⁷⁸⁾ 공식적으로 알영은 시조왕

73)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第5, 善德王 元年 1월;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善德王 知幾三事.

74) 김상기, 1964, 앞의 논문, 44쪽.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125~126쪽.

75) 에리히 노이만, 2007, 앞의 책, 355~366쪽.

76)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第1, 始祖 赫居世居西干.

77) 『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第四 脫解王.

78)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第1, 始祖 5年, “春正月,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女兒. (中略) 納以爲妃. 有賢行, 能內輔, 時人謂之二聖.”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第1, 始祖 17年 “王巡撫六部, 妃闕英

의 부인이었지만, 또 다른 신화적 전승에서 알영과 혁거세는 남매지간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다. 자료 (나)-④라든지, 『삼국유사』 왕력 제1대 혁거세편에서 혁거세의妃가 아니라妹인 娥伊英(또는 娥英)만 기록하고 있는 데에서 추정할 수 있다.⁷⁹⁾ 또 한편으로는 많은 고대 신화에서 그렇듯이 위대한 여신과 그 아들의 관계를 통해 국가사회의 건국과 생산과 풍요를 보장받는다 는 전승이 있었을지도 모른다.⁸⁰⁾ 신성한 여인이 아들을 낳아 나라를 건국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몽골, 만주, 가야, 백제의 건국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널리 퍼진 이야기였다.⁸¹⁾ 이러한 자료의 흔적은 신라시대에 원초적 여신에 대한 관념이 여러 차원의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되어왔음을 이해하게 해준다. 서약의 산신인 서술성모 이야기, 사복 어머니 이야기도 그러한 전승의 하나였다.

4. 맺음말

12세기에 중국으로부터 해동의 시조모가 되었다는 선도산 여신 이야기가

從焉。勸督農桑，以盡地利。”『三國史記』卷第1，新羅本紀第1，始祖 38年“春二月，(前略)我國自二聖肇興，人事修，天時和，倉庾充實，人民敬讓。”

- 79) 『三國遺事』卷第1，王曆第1，“第一赫居世，姓朴，卯生年十三甲子即位，理六十年。妹娥伊英娥英。” 다른 왕들의 경우 왕비를 기록하고 있으나 혁거세에서만 妹를 기록하였다. 아이영 또는 아영은 혁거세의 왕비인 알영과 발음이 비슷하여 대개 이 妹는 妃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현존 최고의 판본인 壬申本뿐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파본본에도 妹로 되어 있다. 이 妹는 妹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三品彰英, 1975, 앞의 책, 42쪽). 妃가 아니라 妹이어도 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이를 해석한다면 설명이 가능하다. 고대의 신화적 관념에서 母子, 男妹, 夫婦의 관계는 서로 통한다. 남매가 세계 창조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보편적 이야기로 한국의 설화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원초적 여신 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남녀가 의미 있는 짝을 이룰 수 있는 부부와 남매와 모자 관계를 통해 창조를 하고 생산을 보증한다는 관념의 소산이다. 혁거세와 알영은 부부이기도 하고 남매이기도 하여 二唄이라는 짝을 이루었고 그림으로써 신라를 성스러운 나라로 창조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경재, 2002,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263~267쪽; 나희라,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 65쪽.
- 80) 혁거세와 알영이 母子 관계일 수도 있음은 다음에서 흥미롭게 제기하고 있다. 三品彰英, 1975, 앞의 책, 437~443쪽; 문경현, 1972, 『신라건국설화의 연구』, 『대구사학』 4, 14쪽.
- 81) 조현설, 2003,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이종주, 2000, 『동북아 始祖神話 話素 구성원리와 제 양상』,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소명출판 참조.

들어와 『삼국사기』 신라편 사론에 소개되자, 시간적으로는 신라시대에서, 공간적으로는 수도였던 경주 지역에서 시조모 선도성모를 좌정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었다.

역사지리적 차원에서는 선도산이 서쪽 방위에 위치한 서악 곤륜산이라는 점에서 신라시대 경주의 서악인 서술산이 선도산이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선도산 여신이 서술산의 여신이면서 또한 신라의 시조모가 되기 위해서는 전래의 신라 시조신화와 서술산 여신의 전승 가운데 이들을 매치시킬 수 있는 어떤 연결 고리가 있어야 했다.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신화들 가운데에 들어 있었을 계룡, 계림, 계정 등 닭과 관련한 요소와 백마의 요소가 그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되었는데, 음양오행설적 해석을 통해 닭과 백색이 서쪽 방위를 상징하므로 신라 시조의 탄생은 서악 여신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해내었다.

경주 서악의 여신은 서쪽 방위의 여신으로 동물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거두기도 하는 선사 이래의 원초적 여신 관념과 숭배를 간직한 존재라는 점에서 선도성모와 공통점이 있었다. 신라시대에 서술산 여신이 시조를 낳아 나라를 세우게 했다는 전승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복모 설화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신라인이 전승해왔던 원초적 여신 관념을 고려해본다면, 위대한 여신의 흔적을 간직한 서술산 여신도 신성한 자식을 낳았다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산 여신이 고려시대에 와서는 그 시조모적 전승을 상실했다 해도, 어떤 계기가 있다면 그녀는 언제든지 시조모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에 선도산 여신이 시조모를 낳았다는 기술에서 비롯되어 서술산 여신은 신라의 시조모로 자리를 잡고 문헌에도 기록되었다.⁸²⁾

더군다나 경주 지역에서 서악 여신에 대한 전승과 숭앙은 고려시대에도

82)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에 의하면, 통일 이후 신라의 서악은 지금 공주의 계룡산이었고 中祀에 편제되어 있었다. 계룡산이라는 명칭은 이때 처음 나오는데, 원래 백제에서 쓰던 명칭인지, 신라에서 다시 붙인 이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언급한 서악과 위대한 여신, 그리고 계룡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계속 이어졌다. 고려시대에 경주 서악에 대한 숭앙은 계속되었는데, 1193년(명종 23)과 1202년(신종 5)에는 서악 산신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국가의 제사를 받았다.⁸³⁾ 서술성모를 설명하는 에피소드 가운데 국가를 진호하는 영험함이 많아 국가로부터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신라시대 小祀 대상의 하나였던 서술에 대한 기억 외에도 당대의 이러한 영험함에 대한 찬사를 기록한 것인지도 모른다.

원초적 여신 관념에 기반한 시조모 관념은 고려시대에는 특히 지리산 여신과 결합하여 만들어져 전승되었다.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제왕운기』에서는 지리산천왕이 도선에게 명하여 고려 건국의 근원을 이루도록 한 성모로 여겨졌음을 기록하였다.⁸⁴⁾ 조선시대에 김종직은 지리산성모가 태조 왕건의 모친 위숙왕후라고 단정해버렸다.⁸⁵⁾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성 산신의 성모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고 지식인들 가운데는 그러한 전승을 역사 속에서 찾아 해석하려는 노력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오랜 여신 관념의 전통은 이후로도 여기저기에 남아 왜곡되기도 하면서 끈질기게 전승되었다. 민속의 마고, 노고 등으로도 불린 할미 신앙이 대표적이다. 할미는 생명의 원천으로서 창조 여신이기도 했고 ‘~산 마고할미’로 써 산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유교적 이념에 의해 배척되기도 했으나 공동체를 존망의 위기에서 구하는 존재로 이야기되면서 전승되어왔다.⁸⁶⁾

여신 중심의 종교신앙은 지구상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존재했다. 그것은 역사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희석되고 파괴되었지만, 인간 정신의 기저에

83) 『東國李相國全集』卷第38, 道場齋醮疏祭文 『東京西岳祭文』 참조.

84) 『帝王韻紀』卷下, 本朝君王世系年代, “聖母智異山天王也 命詵師, 指此明堂謂, 斯爲種稼田, 因以爲王氏. 俗呼稼爲王, 蓋言興王業也.” 이보다 약 30년 후에 쓰여진 『영봉산용암사증창기』에는 지리산 여신이 삼한을 통일하고 평화를 이끄는 존재인 智異山主聖母天王으로 기록되었다(『東文選』第68卷, 記 靈鳳山龍岩寺重創記, “昔開國祖師道誥, 因智異山主聖母天王密囑曰, 若創立三巖寺, 則三韓合爲一國, 戰伐自然息矣. 於是創三巖寺. 卽今仙巖雲巖與此寺是也.”).

85) 『佔畢齋集』文集 第2卷, 紀行錄 遊頭流錄, “余嘗讀李承休帝王韻記, 聖母命詵師, 註云, 今智異天王. 乃指高麗太祖之妣威肅王后也.” 여기서 이승휴의 주는 성모를 지리천왕이라 한 것이고 이를 다시 위숙왕후라고 해석한 것은 김종직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기, 1964, 앞의 논문, 27쪽.

86) 강진숙, 1993, 앞의 논문, 11~24쪽; 천혜숙, 1999, 앞의 논문, 57쪽; 권태효, 2008, 『호국여산신설화의 상반된 신격 인식 양상 연구』, 『설화』, 민속원, 62~63, 72~75쪽.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영화 『황산벌』은 살육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아들’이 들판에서 곡식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고대의 전쟁을 소재로 했지만 현대인이 찾고 있는 생명과 안식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 관념이 표현된 것이다. 이렇듯 여신 관념은 단지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때때로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찾을 때 이정표가 되는 불빛을 반짝이곤 한다.

투고일 : 2021. 09. 30. 심사완료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16.

<표 1> 시조신화에 보이는 계룡·계림·백마

시조	신화 요소	문헌 기록	전거	비고*
혁거세	鷄井 鷄林 鷄龍	왕이 雞井에서 났으므로 혹은 일러서 雞林國이라고도 했다 하는데 雞龍이 상서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혁거세왕	해석
	白馬	높은 데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白馬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혁거세왕 cf) 『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제1, 시조혁거세거서간에서는 白馬가 아니라 馬입.	
	鷄龍 鷄林 白馬	사소가 진한에 와서 聖子를 낳아 동국의 첫 임금 이 되었으니, 아마 혁거세와 알영 二聖이 나온 바 일 것이다. 그러므로 雞龍·雞林·白馬 등으로 일컫는바 닭이 서쪽 방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권제5, 감통제7, 선도성모수희불사	해석
알영	鷄龍	사랑리 알영정에서 雞龍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여자아이를 낳았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혁거세왕	
	鷄龍	雞龍이 상서를 나타내고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서술성모의 현신을 말한 것이 아닐까.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혁거세왕	해석
	鷄龍 鷄林 白馬	사소가 진한에 와서 聖子를 낳아 동국의 첫 임금 이 되었으니, 아마 혁거세와 알영 二聖이 나온 바 일 것이다. 그러므로 雞龍·雞林·白馬 등으로 일컫는바 닭이 서쪽 방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권제5, 감통제7, 선도성모수희불사	해석
알지	鷄林	금빛의 작은 궤짝이 始林의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중략)… 이름을 알지라고 하였다. …(중략)… 시림의 이름을 雞林이라고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계림이 국호가 되었다.	『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제1, 탈해이사금 9년 3월	
		김알지는 雞林에서 태어났는데, 탈해왕이 거두어 궁중에서 기르다가, 나중에 대보에 임명하였다.	『삼국사기』 권제2, 신라본기제2, 미추이사금	
		탈해왕 9년에 始林에서 雞怪가 있어 雞林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로 인하여 국호를 삼았다.	『삼국사기』 권제34, 잡지제3, 지리1, 신라	
		一說에는 탈해왕 때에 김알지를 얻으면서 숲속에서 닭이 울었으므로 나라 이름을 雞林으로 고쳤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혁거세왕	해석

* 문헌 편찬 당시 편찬자를 비롯한 향간의 해석이 가미된 것으로 보여지는 기록에 대해서는 ‘해석’을 붙여 구분을 해보았다.

<표 2> 경주 서술산 관련 기록*

지명	내용		전거
西兄山	진평왕 때 서형산성을 쌓다.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제4, 진평왕 15년 7월
西兄山	보희가 서형산에서 오즘을 누는 꿈을 꾸다.		『삼국사기』 권제6, 신라본기제6, 문무왕
西兄山	문무왕 때 서형산 밑에서 사열하다.		『삼국사기』 권제7, 신라본기제7, 문무왕 14년 8월
西兄山	홍덕왕 때 서형산 밑에서 사열하다.		『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제10, 홍덕왕 9년 9월
西兄山	서형산성의 소금 창고가 울음 소리를 내다.		『삼국사기』 권제10, 신라본기제10, 애장왕 10년 6월
西述	小祀 중에 모랑에 위치한 서술이 속하다.		『삼국사기』 권제32, 잡지제1, 제사 신라
西兄山郡	경덕왕 때 서형산군을 商城郡이라 이름으로 고치고 지금의 경주에 합쳤다.		『삼국사기』 권제34, 잡지제3, 지리1 신라 상성군
西原	김인문을 서원에 묻다.		『삼국사기』 권제44, 열전제4, 김인문
西嶽	西嶽大王이 도적을 잡는 공을 세우다.		『동국이상국전집』 권제38, 도장재초소제문 『동경서악제문』
牽梁 西嶽	진성여왕을 화장하여 모랑 서악에 화장하다.		『삼국유사』 권제1, 왕력, 제51대 진성여왕
西嶽	보희가 서악에 올라 오즘을 누는 꿈을 꾸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태종춘추공
仙桃山, 西嶽山	仙桃聖母 (仙桃山神母, 西嶽山神母)가	隨喜佛事하다.	『삼국유사』 권제5, 감통제7, 선도성모수희불사
		도래하여 술개의 점지로 좌정하다.	
		매를 부리다.	
		혁거세와 알영을 낳다.	
		직조·염색·作朝衣하다.	
西山	김현이 서산에 거처하는 호랑이와 정을 통하다.		『삼국유사』 권제5, 감통제7, 김현감호
仙桃山, 西嶽, 西述, 西兄, 西嶽	신라 때 西嶽, 西述, 西兄, 西嶽이라 부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21권, 경상도 경주부 산천

* 『삼국사기』 신라본기 사론의 '선도산'은 특정 지역의 산 이름을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표>에 넣지 않았다.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東國李相國全集』, 『帝王韻紀』, 『佔畢齋集』,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山海經』(정재서 역주, 1996, 『산해경』(신장판, 민음사), 『史記』(標點校勘『史記全』, 1975, 경인문화사), 『搜神記』(干寶 原著 黃添明 注譯, 1991, 『搜神記 全譯』,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2. 단행본

- 김의숙, 1993,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 김택규, 1985,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 _____,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 박원길, 1998, 『북방민족의 샤머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 송정화, 2007, 『중국 여신 연구』, 민음사.
- 이경재, 2002,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 이병도 역주, 1982, 『原文兼譯註 三國遺事』(수정판), 廣曹出版社.
- 전호태 · 이하우 · 홍승지, 2020, 『한국의 바위구멍 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학예적보존연구소.
- 조현실, 2003,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 주보돈, 2020, 『신라 왕경의 이해』, 주류성출판사.
- 황용훈, 1987,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민음사.
- 三品彰英, 1973, 『古代祭政と穀靈信仰』, 東京: 平凡社.
- _____, 1975, 『三國遺事考証 上』, 東京: 塙書房.
- 村上四男, 1995, 『三國遺事考証 下之三』, 東京: 塙書房.
- Campbell, Joseph, 2013, *Goddesses - mysteries of the feminine divine*, California: Joseph Campbell Foundation, New World Library(조지프 캠벨 지음, 구학서 옮김, 2016, 『여신들 - 여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잊혔는가』, 청아출판사).
- Carmody, Denise Lardner, 1979, *Women and World Religion*(D. L. 카모디 지음, 강돈구 옮김, 1992, 『여성과 종교』, 서광사).
- Eliade, Mircea, 1983,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Paris: Payot(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이재실 옮김, 1993, 『종교사 개론』, 까치).
- Gimbutas, Marija, 1991, *The Language of the Goddess - unearthing the hidden symbols of western civilization*,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마리아 김부타스 지음, 고혜경 옮김, 2016, 『여신의 언어』, 한겨레출판).
- Loewe, Michael, 1982, *Chinese Ideas of Life and Death*, London: Routledge(마이클 로이 지음, 이성규 옮김, 1987, 『古代中國人の 生死觀』, 지식산업사).
- Neumann, Erich, 1974, *Die Grosse Mutter*, Patmos Verlag: Düsseldorf und Zürich(에리히 노이만 지음, 박선화 옮김, 2007, 『위대한 어머니 여신-인류의 무의식적 심층 속에서 여성의 원형을 찾는 위대한 탐구』, 살림).

3. 논문

- 강진옥, 1993,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 권태효, 2008, 「호국여산신설화의 상반된 신격 인식 양상 연구」, 『설화』, 민속원.
- 김복순, 2015,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과 신라인」, 『신라문화』 4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상기, 1964, 「國史上에 나타난 建國說話의 檢討」, 『학술지』 5-1, 건국대학교.
- 김종근, 2009, 「선도성모 설화의 변개 양상과 그 의미」, 『온지논총』 23, 온지학회.
- 김준기, 1994, 「고대신화에 나타난 神母信仰」, 『한국민속학보』 4, 한국민속학회.
- 김태식, 2007, 「고대 동아시아 서왕모 신앙 속의 신라 선도산성모」,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 김철준, 1971,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성격」, 『유홍렬박사회갑기념논총』, 탐구당(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에 재수록).
- 나희라,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17, 「울주 천전리 각석과 신라인의 바위신앙」, 『신라문화』 5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_____, 2021, 「『삼국유사』 ‘사복불인’ 설화와 여신 관념」,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진인진.
- _____, 2021, 「고려시대 선도성모 이야기의 전래와 정착」, 『한국사연구』 194, 한국사연구회.
- 남동신, 2007,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성」, 『일연과 삼국유사』(일연학회연구원편), 신서원.
- 문경현, 1972, 「신라건국설화의 연구」 『대구사학』 4, 대구사학회.
- 손경수, 1962, 「한국 십이지생초의 연구」, 『이대사원』 4, 이화여대 사학회.
- 손진태, 1934, 「朝鮮 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진단학보』 1, 진단학회(1948, 『조선 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에 재수록).
- 양은용, 1994, 「도교사상」, 『한국사』 16(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국사편찬위원회.
- 이종주, 2000, 「동북아 始祖神話 話素 구성원리와 제 양상」, 『동북아 사머니즘 문화』, 소명출판.
- 윤미란, 2007, 「선도성모 서사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1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윤혜신, 2012, 「서술산 여신 신화」와 「선도산 여신 신화」의 서사 윤곽과 구비문학적 변모」, 『구비문학연구』 34, 한국구비문학학회.
- _____, 2013, 「한국 고대 여신의 유형과 역사적 선후 관계」, 『동방학지』 162, 국학연구원.
- 전호태, 2018, 「한국 고대의 여신신앙」, 『역사와 경계』 108, 부산경남사학회.
- 정재서, 2020, 「한국의 서왕모 수용과 그 요인」, 『한국언어문화』 73, 한국언어문화학회.
- 차순철, 2021, 「경주 서약동고분군의 조성과 의의」, 『신라문화』 5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채미하, 2016, 「한국 고대 신모와 국가제의-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6,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신라사학보』 37, 신라사학회.
- 천혜숙, 1991, 「여성신화 연구(1): 大母神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1,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 _____, 1999, 「신화로 본 女系神聖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 17, 비교민속학회.
- 宮家準, 1973, 「山岳信仰」, 『宗教學辭典』(小口偉一·堀一郎 監修,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19~220쪽).
- 馮友蘭, 1983 「陰陽五行家的具有唯物主義因素的世界圖式」, 『中國哲學史新編』, 北京: 人民出版社 (양계초·풍우란 외 지음, 김홍경 편역, 1993,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에 재수록).

The Mother Goddess of Mt. Seosul and Ancient Korean Goddess Ideas

Na, Hee-La*

This article explains how the story of a female immortal in Mt. Seondo, which came from Song[宋], became the story of the first king and queen's mother of Silla[新羅] and summarizes the goddess concept that made it possible.

When the story of the goddess of Mt. Seondo was introduced in *Historical Record of the Three Kingdoms*[Samguk sagi 三國史記], Mt. Seondo was judged as Mt. Seosul, a western mountain of Gyeongju in the Silla period, in that it was located in the western direction. The goddess acquired the position of the founder's divine mother through symbolic interpretation of the chicken and white colour in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founder.

In this way,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Samguk yusa 三國遺事], the mother goddess of Mt. Seondo[仙桃聖母] was described as the goddess of Mt. Seosul and of the founder's divine mother and a being who gave birth to the founder with her great creativity, established and protected the country, and shows the sacredness of dealing with animals and weaving. This notion of a goddess is a trace of the original idea of a 'great goddess' around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The notion of the founder's divine mother based on the original conception of the goddess continued to be handed down during the Goryeo Dynasty, but the goddess idea was gradually diluted and distorted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the historical situation in which the mythological idea was more strongly denied. Nevertheless, the idea of the goddess took root in the human mind and continues to live on to this day.

Key words : goddess, the mother goddess of Mt. Seondo[仙桃聖母], the mother goddess of Mt. Seosul[西述聖母], founder's myth of Sill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Samguk yusa 三國遺事]